

고시생과 법학계의 영원한 길잡이

『考試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합니다. 고된 고시공부 시절 책방 속엔 항상 넣고 다니면서 읽었던 수험서. 그 속에서 만난 수많은 고시 합격생과 선각자들. 저처럼 오랫동안 사법시험을 공부한 사람에게 『考試界』는 수험 지침서를 넘어 인생의 지침서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친구 『考試界』가 창간 5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니 축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대에 진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지만 아무도 고시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다. 교수님은 강의만 할 뿐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다. 당시 고시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考試界』를 구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에 목마른 수험생들에게 『考試界』는 시원한 샘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의 대학시절 신림동 고시촌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고시 학원도 없어 앞선 합격자들이 들려주는 『考試界』의 '합격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합격기를 읽고 공부방법을 고치기도 하고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모범답안을 뜯어 교과서에 끼워두고 읽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이 게재하는 논문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흘러도 『考試界』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정보지로서 변함없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속에 우수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학술전문지로서 여전히 법학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서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대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지금 청년변호사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냉엄한 현실의 원인은 변호사 과잉배출입니다. 2014년 일본사법시험 합격자수는 1810명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GDP가 4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간 우리의 변호사 배출 수 연간 2500명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여 법조인양성체도를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1만명이 배출되는데 100년이 걸렸으나 다시 1만명이 증가하는 데는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만명이 더 증가하여 3만명이 되는 데는 6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정부가 변호사를 대량 배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변호사 수요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직역을 개척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려는 어떤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변호사 스스로 개척할 문

하창우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
- 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제라고 방지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만 관심 있을 뿐 변호사가 되고 난 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변호사 수요정책의 개발과 입법을 위해 법조 실무계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00년 이상 법조인 양성제도의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은 이제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 국민의 73%가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간절히 원하는 일반국민들 중에는 로스쿨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재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민의 아들과 딸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거나 부와 신분이 세습되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시험입니다.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가 많을수록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법조지역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보다 싼 가격으로 법조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평등의 이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4개(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의원 안) 입법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 1개 법안만 통과되면 사법시험은 존치됩니다. 지난 달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사법시험 존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여당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를 당 정책으로 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사법부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방하였고 법무부도 다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되었고 지금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로스쿨의 존재와 그 당위성이 사법시험을 폐지할 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考試界』는 종전과 변함없이 고시생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6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법학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온 수험전문잡지로서 또한 학술전문지로서 『考試界』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도약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